창사 63년 새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남양건설

광주매일신문

광주매일TV
▶m.kjdaily.tv ▶m.kjdaily.com 광고문의 062)650-2070

제8055호 대표전화 (062) 650 - 2000 kjdaily.com 2021년 10월 27일 수요일 (음력 9월 22일)

文 "도와달라"-李 "文정부 성공 노력"

文대통령-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청와대서 회동
"대선 선의의 정책 경쟁 해야…이낙연 만남 좋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만나 후보 선출을 축하하면서 "대선 과정에서 정책을 많이 개발하고, 또 정책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저도 경기도지사로 일한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라며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했지만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역사적 정부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과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50분간 차담하며 이러한 내용의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우선 "당내 경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것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겪어보니까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 같다. 좋은 정책을 많이 발굴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 정책을 갖고 다른 후보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면 그 과정 자체가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그렇게 완성된 정책이 다음 정부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설계도가 되는 셈"이라며 "이는 이 후보께도 부탁드리는 말씀이고, 다른 후보들에게도 똑같은 당부를 드리고 싶다"고 했다.

또 "(당내에서) 경쟁을 치르고 나면 그 경쟁 때문에 생긴 상처를 서로 아우르고 다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 면에서 일요일에 이낙연 전 대표님을 (만난 것이) 서로 아주 좋았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예산안 시정연설을 언급하며 "내년도 예산은 우리 정부보다 다음 정부가 쓸 몫이 훨씬 많은 예산이다. 이를 감안해 편성을 했다"며 "제가 첫 해에 갑자기 중간에 예산을 인수해 추경 편성 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후보와의 2017년 당내 대선후보 경선 경쟁을 떠올리며 "지난 대선 때 저하고 당내에서 경쟁했고, 경쟁을 마친 후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정권교체를 해내고 그동안 대통령과 경기지사로 함께 국정을 끌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나는 물러나는 대통령이 되고, 이 후보가 새로운 후보가 되셔서 여러모로 감회가 새롭다"며 "끝까지 많이 도와달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에 "대통령님을 일대일로 뵙기가 쉽지 않은데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며 "문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민주당의 핵심 가치라고 하는 민생, 개혁, 평화의 가치를 정말 잘 수행해주신 것 같다"고 화답했다. /김진수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회동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교생·건설현장 노동자 등 산발적 감염 지속

광주, 완전 접종자 아닌 '학생' 무더기 자가격리 방역 비상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광주·전남에서 산발적 감염이 지속하고 있다.

2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모두 11명(광주 5명·전남 6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주 확진자 5명 중 1명은 한 고등학교 학생으로 지난 24일 발열 등 증상이 나와 검사 후 이날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이날 해당 학교 학생과 교직원 619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또 해당 학생이 광주시교육청에서 주관한 학생의회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감염자 발생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행사에는 59개 고교 학생회장 또는 개방형 학생의원 등 59명이 참석했다.

참석자 대부분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2차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나지 않은 '완전 접종자'가 아닌 학생들로 실내 공간에서 회의와 모둠 활동 등 4시간여 동안 교류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광주 신규 확진자는 기존 확진자 관련 3명, 유증상 감염 1명이었다.

전남에서는 완도 2명, 영광·신안·나주·장성 각 1명 등 6명이 격리 병상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신안 확진자는 최근 감염자가 잇따른 섬 지역 건설노동자로 지난 21일 확진된 지표환자의 동료이다. 신안 건설현장 관련 확진자는 이날까지 15명으로 늘었다.

영광과 완도 확진자는 기존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오승지·임후성기자

노태우 前 대통령 사망

12·12 쿠데타 주도·첫 직선 대통령…전두환 이은 '5공 2인자'
3金 누르고 87년 대통령 당선…5·18 단죄·비자금 조성 등 '수감'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숨졌다. 향년 89세.

지병으로 오랜 병상 생활을 해온 노 전 대통령은 최근 병세 악화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의료진의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삶을 마감했다.

▶관련기사 2면

병마와 싸우던 고인은 우연의 일치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일(1979년 10월26일)과 같은 날 세상을 떠나게 됐다.

노 전 대통령은 육군 9사단장이던 1979년 12월12일 육사 11기 동기생인 전두환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하나회' 세력의 핵심으로서 군사쿠데타를 주도했다. 쿠데타 성공으로 신군부의 2인자로 떠오른 노 전 대통령은 수도경비사령관, 보안사령관을 거친 뒤 대장으로 예편, 정무2장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5공화국 말기 전두환 전 대통령을 이을 정권 후계자로 부상, 1987년 6월10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치러진 민정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후보로 지명됐다.

노 전 대통령은 야권 후보 분열에 따른 '1노(盧)3김(金)' 구도의 반사 이익을 보면서 같은 해 연말 대선에서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보통사람 노태우'를 슬로건으로 내건 노 전 대통령은 직선 대통령에 선출된 뒤 민주주의 정착과 외교적 지위 향상, 토지공개념 도입 등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인은 1987년 6월 민정당 대선후보 선출 이후 전두환 정권의 간선제 호헌 조치에 반발하는 시위가 확산하자 직선제 개헌을 약속하는 '6·29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이른바 '1987년 체제' 탄생을 가져왔다. 특히 김대중 사면복권, 시국사범 석방 등을 담은 6·29 선언을 통해 신군부의 공포 이미지를 희석하고 '민주주의를 수용한 온건 군부' 이미지를 구축, 위기에 처했던 군사정권을 안정시키고 대선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

안으로는 국민통합, 밖으론 북방외교와 남북관계 개선을 기치로 내건 노 전 대통령은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88 서울올림픽 개최, 옛 소련·중국과의 공식수교 등 성과를 내며 외교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도 받는다.

그러나 퇴임 후 12·12 주도,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수천억 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전 전 대통령과 함께 수감됐고 법원에서 징역 17년형과 추징금 2천600억여 원을 선고받는 등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한 면을 장식했다.

1997년 12월 퇴임을 앞둔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됐지만, 오랫동안 추징금 미납 논란에 시달리다가 지난 2013년 9월에야 뒤늦게 완납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옥숙 여사와 딸 소영, 아들 재헌이 있다. 소영 씨와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사위이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Today

광주기초의회 특위 성과'낙제점' 6면
지역 호텔·백화점, 문화향기 물씬 12면
장갑수와 함께 걷는 길-순창 14면

CMYK